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0월 5일 BU 멧칼프 트러스티 센터(Metcalf Trustee Center)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서 매사추세츠 주 하원 아시아 코커스 의원들이 10월 5일을 코리아데이로 선언하는 의회 결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도널드 왕 의원, 유기준 총영사, 바나 하워드 의원, 트램 누엔 의원, 태기 찬 의원

**임시 휴간 안내**  
10월 14일자 임시 휴간합니다

## 어린이들 바이러스 질환 이른 급증, 중환자실 채워

MGH 중환자실 만원, 칠드런스호스피탈도 방문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겨울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일찍 찾아들어 병원을 찾는 호흡기 질환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호흡기 종합 바이러스(RSV),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라이노바이러스(rhinovirus) 등 일반적으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작되지만 올해는 여름철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학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늘었다.

MGH의 어린이 중환자실은 이미 만원이다.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탈은 병원을 찾은 수가 늘었고 이로 인해 대 ▶▶7면으로 계속

## 3년만에 열린 개천절 리셉션, 생생한 활기 넘쳐

매사추세츠 주 하원, 로드아일랜드 주 하원 한국의 날 선포  
MA 주정부는 쉐릴 포프 보훈부 장관 통해 표창장전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 보스톤총영사관은 2022년 개천절 리셉션을 3년만에 대면으로 보스톤 소재 BU 멧칼프 트러스티 센터(Metcalf Trustee Center)에서 10월 5일 개최했다. 이번 개천절 행사에는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태기 찬, 트램 누엔, 바나 하워드, 도널드 왕 하원의원과 로드아일랜드 주의회의 존 에드워드 하원의원 그리고 주정부를 대표해 쉐릴 포프 보훈부 장관이 보스톤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 한인사회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의 개천절 행사에서 만나 반갑게 안부를 묻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눴다. 유현경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2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3년만에 열린 개천절 리셉션, 생생한 활기 넘쳐

▶▶1면에 이어서

합창단과 필하모니아보스턴의 한국 애국가와 미국의 국가제창 및 연주로 시작됐다.

원고 없이 단상에 오른 유기준 총영사는 이날도 6분 30초에 달하는 영어 환영사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유총영사는 “보스턴에 부임한지 22개월만에 처음이며 팬데믹 이후 첫 대면 개천절 행사여서 이번 행사를 특별히 갈망하고 있었다” 고 운을 떼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총영사는 “한민족의 굳은 의지와 소명의식 그리고 우방들의 희생으로 2차대전 이후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떠올랐다” 며 “개천절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느껴진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수교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최근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

남으로 어느 때보다 깊다고 강조했다.

유 총영사는 또한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의 한국영화 드라마와 BTS 등 케이팝, 케이 푸드 등 한국 문화가 세계를 즐겁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택키 찬 하원의원은 “팬데믹 전인 3년전에도 개천절 행사에 참여했다” 고 말하고 지난해 콜리지 코너에서 실시된 <미나리>영화 상영회에 참석했던 것도 언급했다. K드라마를 본다는 그는 기생충의 아카데미수상,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 문화 수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가까운 사이인지를 알게 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간의 격차를 좁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트랩 누엔 의원은 “한국의 문화가 미국내 ▶▶3면으로 계속



## 잠깐 상식 - 개천절의 의미

교육부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정됐다. 개천이라는 뜻은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어 흥익인간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음력 10월 3

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축하행사를 열었다. 1949년 문교부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다.

개천절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자주성과 민족의식을 높이는데 역할을 했으며 널리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일(National Foundation Day)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설렁탕**  
Beef Soup for the Soul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Galbi (beef short ribs)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에서 점차 증가하고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기쁘다. 유 총영사가 언급한 것처럼 음악, 영화, 텔레비전에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즐겁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간의 교류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나 하워드 의원은 “지난 시민 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에서 유 총영사를 3번째로 만났는데 그날 정치인턴 중의 한 명이 우리 오피스에서 인턴으로 일했었다” 며 이번이 4번째 만남이라며 한인사회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자신도 매사추세츠 의원들처럼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존 에드워드 하원의원은 자신의 한국 방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작은 나라였지만 6~7가지의 김치 맛을 보았다”

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유엔참전용사의묘에서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았다며 이들이 한국과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죽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이후 가장 오래된 동맹이 된 것처럼 우리의 희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어 오랫동안 지속될 동맹이 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로드아일랜드주는 매년 8월 15일 일제에서 독립한 한국의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로드아일랜드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며느리를 맞이해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는 도날드 워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다른 하원의원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하원의 한국의 날 선포문을 낭독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누이로 한국과 인연이 깊은 웨일 포프 매사추세츠 주 보훈부 장관은 주지사의 표창장을 유기준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지상욱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장의 건배사로 건배 후 보스톤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중인 줄리아니 리씨와 필하모니아 보스톤 현악 4중주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이날 개천절 행사에는 현대가 인수한 보스톤다이내믹스의 가장 일화된 로봇 ‘스팟’ 이 전시됐으며 참가자들에게 스팟의 움직임을 선보였다. 유 총영사는 한미 경제협력의 한 상징으로 보스톤다이내믹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에는 약 7여명의 현대 자동차 연구원들이 과견돼 현대와의 협업을 연구 중이다.

##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10월 8일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제공  
한복을 입은 한인들이 김치 선물로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지난해 인기리에 진행됐던 김치 페스티벌을 올해도 10월 8일 토요일 렉싱턴 헤이스팅스 파크에서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김치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시작한 이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3종을 만들어서 선물로 증정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은 주보스톤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매사추세츠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한다.

한인회 측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을 맞아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과 외국인들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직접담은 김치를 판매하고, 함께 만들면서 김치 담그는 방법도 현장에서 전수한다. 한인회는 올해에도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선물한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 고전무용



, 그리고 케이팝 노래와 춤등을 선보인다. 볼거리 외에 충분한 먹거리도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운다. 페스티벌에서는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김밥, 잡채, 만두 등이 준비된다.

한인회 정대훈 사무총장은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동포 여러분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며 “추운 날씨가 예상되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 창립 25주년 기념문집 출간

## 기념식 및 기념문집 출간 축하연 지난달 24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회장 임영호)는 지난 9월 24일 동창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기념문집 출간 축하연을 니드햄 소재 세라톤 호텔에서 80여명 가까운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에서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전달했고, 뉴욕에서는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한인사회의 리더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팬데믹 이후 50학번에서 14학번까지, 관악회를 포함한 여러 세대의 동문들이 오랜만에 실내에서 자리를 같이 한데 큰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4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한 작은 음악회는 축하연의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다.

축하연은 임 회장의 개회선언과 환영사에 이어 다 함께 교가를 제창한 후, 44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하는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임 회장이 대독하며 시작되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서울대 총동창회도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울대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며 현재 추진 중인 여러 프로젝트를 전했다.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은 “오늘 뉴잉글랜드 동창회, 기념문집 <진리의 빛, 뉴잉글랜드를 비추다> 출간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이 작은 행성에서 지난 25년간의 세월을 응축한 한 편의 이야기와 한 페이지

이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라며 기념집 발간을 경하해 주었고, 이어 보스톤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이영길 동문과, 윤상래 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이영숙, 주재희, 권현지, 김민경으로 구성된 4명의 첼로 연주자들의 연주가 있었는데 피아졸라(Piazzolla), 가델(Gardel), 그리고 거쉰(Gershwin)의 곡들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시작된 축하연에서는 식사가 끝나자 각 테이블에 자리한 참석자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서영애 매사추세츠 한인회장과 양미아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의 25주년 문집발간에 대한 축사가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의인 편집장의 발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김정선 편찬위원장은 편집진과 저문진의 소개 및 뒷 이야기를 하였고, 애플

워치와 아마존 에코 등을 포함한 경품 추첨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축하연의 막을 내렸다.

뉴잉글랜드의 한인의 발길은 120년 전에 구당 유길준의 첫 서구유학으로 시작된 이후, 서울대인의 발자취는 70여년 전부터, 그리고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25년 전에 설립되어 이제는 성숙한 나이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5주년 기념문집은 문집 전반부에 4천세기 역사를 간추려 정리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호주의 김정인 직전회장도 “500여 쪽의 거대한 동문집임에 놀랐다.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선후배 동문님들의 글을 읽으며 고통을 넘어선 자의 환희를 생각했다. 창립 25주년 기념문집이 전세계 서울대 동창회의 귀감이 될 것을 믿는다.” 고 축사를 전했다.

편찬위원으로는 정정욱, 윤은상, 이강원, 장수인 동문들이, 문집 아트와 디자이너로는 이경아 동문이, 이외에 12분의 동문들과 외부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취재/문집/출판 문의  
김정선 jkim@systemic.com  
이의인 euinlee@verizon.net

bostonkorean@hotmail.com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p><b>Plus 상품</b> KBS, MBC, SBS, EBS, YOUTUBE</p> <p><b>\$24.99</b></p>	<p><b>Premium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p><b>\$34.99</b></p>	<p><b>VIP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p><b>\$39.99</b></p>
---	--	---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H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 올 겨울 플루 극성 예상, 전문가들 백신 적극 권고

### 6세이상 10월 말 이전까지 백신 접종 권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 가을 및 겨울철을 맞아 플루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10월달 내로 플루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올 가을 및 겨울철에 플루가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플루백신은 추후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가족을 보호해주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조정관인 애시시 자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에 플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올 겨울에는 플루와 코로나바이러

스가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말하고 “이달 말 이전에 플루백신과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고 권했다.

미국 감염병재단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69%가 플루백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단 49%의 성인이 올해 플루백신을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시카고대학에서 실시한 것으로 상당수의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측면을 나타낸다. 성인의 32%만 플루백신과 코로나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했다.

겨울시즌이 끝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난 겨울 플루가 극성을 부

렸으며 이는 북반구의 겨울 시즌의 예고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CDC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내에서는 매년 1만2천에서 5만 2천명의 국민이 플루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플루는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과 2월 사이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모든 것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질병통제센터는 6개월 이상인 미국인들은 매년 플루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6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가장 강력한 백신 3종 중의 하나를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우번 브라질 식당 밀입국 후 임금 착취 혐의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우번에서 브라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브라질 밀입국에 개입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제시 제임시 모라이스(64), 휴고 지오반니 모라이스(42)부자는 브라질에서부터 밀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만달러의 돈을 챙기고 밀입국시켰다. 이후 이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해 나머지 돈을 갚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부자와 더불어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제시 모라이스의 동생 헬브 윌리엄스 모라이스도 함께 기소됐다.

헬브는 브라질에서 사람들을 모아 \$18,000에서 \$22,000를 챙기고 밀입국을 도왔다. 밀입국자들이 매사추세츠에 도착하면 제시와 휴고 모라이스는 이들을 우번에 있는 자신들의 식당 투도나브

래사(Tudo Na Brasa)와 더 도그 하우스(The Dog House)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짜 서류를 제공해 밀입국시켰으며 노동허가 또는 난민 신청 하는 것을 도왔다. 우번에 거주하는 마르코스 차콘(29)은 모라이스 부자에게 가짜 서류를 위조해 팔아 결국 위조서류 취급으로 체포됐다.

브라질에서 밀입국된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했으며 이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들은 약 \$32,00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밀입국했으며 이중의 절반은 미리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사추세츠 도착 6개월 이후부터 한달에 \$1,450씩 되갚도록 했다. 이들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며 한시간에 \$3씩을 받았다.

hsb@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오랜만에 직접 듣는 한국 가곡... 눈물이 났다”

##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어루만진 한국 가곡의 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옥, 회장 김병국)가 주최한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이 지난 10월 2일(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텀스 대학교의 그라노프 뮤직 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20년 이후 보스톤에서 처음 열린 한국 가곡 음악회였던 이번 행사에는 소프라노 나유선, 테너 김유중, 피아니스트 이지영이 250여 명의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노래들을 들려주었으며, 공연 예술가 캐시 여(Kathy Eow)의 프레젠테이션과 유수레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어우러졌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교수이며 이 음악회를 기획한 소프라노 나유선씨는 1부에서는 <그네>, <가을 바람>, <그리움 실은 파도>, <무곡>, <그리움>을, 2부에서는 <함께 아리랑>과 민요풍의 <새타령>, <밀양아리랑>을 연주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초연된 <함께 아리랑>은 이번 음악회를 위해 나유선씨가 직접 가사를 쓰고 앤서니 폴드리티스(Anthony Paul De Ritis) 교수가 작곡했다. 평화와 사랑으로, 민족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한국어 가사 세팅도 훌륭했고 소프라노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멋진 곡과 무대였다.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단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한 테너 김유중씨는 <산노을>, <얼굴>, <벚노래>, <내 맘의 강물>, <산춘> 등의 널리 알려진 가곡들과 김효근의 <첫사랑>, <눈>을 연주했다. 호흡에 실린 소리, 섬세한 디션, 다이내믹 조절로 시의 의미와 감성을 진솔하게 전달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고, 민요풍의 곡에서는 리듬과 흥을 살리며 함찬 고음을 보여주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모든 성악곡의 반주를 맡았던 피아니스트 이지영씨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성악가들이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도록 호흡을 잘 맞춰주면서, 음악 전체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탁월했다. 독주곡인 <피아노를 위한 한국 민요 날리리> (Jean Ahn 작곡)에서도 훌륭한 기교와 음악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피아니스트 현재희 교수는 “음악회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민요, 가요, 옛 가곡, 요즘 가곡 등이 섞여 있어 다채롭고 좋았다. 이지영 씨의 연주는 리듬감이 뛰어나고 피아노 톤이 아름다웠으며, 압도하지 않는 절제된 피아노 소리가 성악가와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었다.” 고 칭찬했다.

이번 연주에서는 모든 곡에 각각 어울리는 그림이 무대의 스크린에 띄워져서 듣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주었는데, 이날 보인 모든 그림은 뉴햄프셔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유수레 작가의 작품이었다. 많은 관객들이 음악과 함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평했다.

보스톤 한인입양자 모임의 이사이고 보스톤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의 코디네이터인 캐시 여의 무대도 특별했다. 그녀는 이날 초연된 <Reclamation 되찾기>라는 프레젠테이션에서 1980년대 부산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어 조상, 문화 유산, 역사 등 선대로부터의 연결이 끊어졌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한국인 입양자/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인식하고 ‘Koreanness’ 를 갖게



사진 제공: Olivia Moon Photography

되었는지, 그리고 ‘아리랑’ 곡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솔직하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했다. 한 관객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문화적 단절,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이 있기에 공감이 가고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클로징 무대에서는 두 명의 성악가가 듀엣으로 <그리운 금강산>과 <희망의 나라로>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곡의 흥겨운 전주가 울려 퍼지자 객석의 청중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박자를 따라 갔고,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 음악회가 마무리되었다.

예술협회 측은 “오랜만에 라이브로 한국 가곡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한국 커뮤니티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한 외국 분도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한국의 노래를 보스톤에 계신 분들께 들려드리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들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어린이들 바이러스 질환 이른 급증, 중환자실 채워

▶▶1면에 이어서

기시간이 늘었다. 각종 1차진료 시설 들에도 어린이 환자들의 방문이 급증했다.

미 소아과 아카데미 매사추세츠 지부 매리 베스 미오토 회장은 “예년의 지금과는 약간 다르게 올 가을 소아과를 찾은 호흡기 질환 어린이들이 급증했다.” 고 밝혔다.

RSV는 1-2주의 가벼운 감기증세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다. 그러나 조기 출산이나 병력이 있는 유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전체 5세 이하의 영유아 중에 RSV로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5만8천에 달한다.

미오토 회장은 RSV가 12월부터 3월 사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임에도 현재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일반 감기의 강력한 원인인 라이노바이러스도 늘었다. 또한 소화기관에 감염을 일으키지만 호흡기 질환 증상을 일으키는 엔테로 바이러스도 늘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엔테로 바이러스-D68이다. 드물게 이 바이러스는 폴리오 같은 마비증상을 일으킨다. CDC는 EV-D68, 기타 엔테로바이러스 그리고 라이노바이러스가 지난 여름동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도 학교 재학연령의 아이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다.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은 무려 60%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늘었으며 5에서 9세 사이에서는 27.8%가 늘었다.

한가지 플루의 경우 아직 뚜렷한 유행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된 감염 방지 노력이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역력이 아주 낮아졌다” 고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탈 감염병 전문이 크리스틴 포핏 박사는 말했다. 과거의 경우 6세 이전의 아동들은 라이노바이러스에 4-5번 정도 노출됐지만 지금은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가 느슨해지고 마스크 착용도 없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다 보니 바이러스에게는 물 만난 생선처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포핏 박사는 “지난해만 해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올해는 아무런 완화장치가 없다. 아이들은 더 어울리고 실내에서는 더 많은 전염이 이뤄진다” 고 말했다. 특히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은 연령의 아이들은 다른 가족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노출되게 된다.

유아나 2-3살 아이들은 기도가 작고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이 같은 호흡기 질환에 훨씬 더 중병을 일으킬 수 있다.

버나드 키네니 MGH소아폐질환과 과장은 지난 팬데믹 동안 일반 호

흡기 질환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끝낸 순간부터 “호흡기 질환의 급증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나 볼 수 있었던 바이러스들을 여름철에도 목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겨울철 질병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패턴은 9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MGH의 14 중환자실 침상은 여전히 꽉 찬 상태다. 키네니 박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시 완전히 회복되며 이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공포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가족내에서 미리 주의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른들과 6세 이상의 아이들은 플루백신을 맞을 것과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부스터 샷을 맞을 것을 권장했다.

이와 더불어 아픈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쉬도록 해야 하며 열이 심할 경우 응급실을 찾기도 하는 아이들 소화와 진료를 먼저 방문하도록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

전 세계 한인회장 및 한인회 연합회 64개국 333명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 세계 한인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논의하는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한인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 해외 이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광역시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유제현 유럽 한인총연합회장과 유영준 중남미 한인총연합회장이 대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개회식에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51명의 국내 주요인사와 한인회장 및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 64개국 333명(오프라인 260명, 온라인 73명)이 참석

했다. 개회식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환영오찬이 이어졌다.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 라는 슬로건 아래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732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공외교’ : Beautiful Koreans’ 라는 공동주제를 토대로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등 10개 지역별 주요 현안토론과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민족의 운영사례 발표,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되며, 유관기관의 상설 홍보관이 상시 운영된다.

김성근 이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존경받는 한인들이 되고, 모국 대한민국에도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아’ 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시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톤 주안에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 장거리 비행 여행시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로 여행을 삼갔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장거리 여행에서는 작은 준비들이 여행을 편안하게 만든다. 휴가 카렌탈 전문업체의 스트레스 프리 카렌탈 닷 컴 (StressFreeCarRental.com)은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상쾌하게 나설 수 있는 준비 아이템들을 소개했다.

준비 물품 중에서도 위생 및 뷰티제품의 준비가 중요하다. 핸드 보습제와 물휴지, 여행 배게, 수면 마스크 등은 편안하게 여행하는데 필요하다. 다음은 주요 준비 물품들이다.

## 여행 배게와 슬립마스크

장시간 비행시에는 수면이 필요하다. 만약 여행 배개가 없다면 목이 아파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수면 마스크는 원하지 않는 불빛을 잘 차단해준다.

## 귀마개

비행시에는 여러가지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장시간 비행시에는 귀마개가 필요하다. 에어컨디셔너, 엔진, 우는 아이 등의 소리를 잘 차단해줄 수 있다.

## 립밤과 손 보습제

비행기의 공기는 아주 건조하다. 립밤과 손 보습제는 비행 동안에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100밀리 리터 이상의 액체 보습제는 기내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치약과 칫솔

밤을 꼬박 보내는 비행이라면 칫솔과 치약은 필수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 가능하면 여행용 칫솔과 치약을 사용한다.

## 스카프와 겹옷



비행기의 에어컨디셔너는 약간 춥다. 핸드 캐리어 가방에 스카프나 가벼운 겹옷을 준비해 추울 때 바로 덮도록 한다.

## 겹옷 갈아입기

항상 여분의 겹옷을 준비해 두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옷으로 갈아입는다. 아주 다른 기온의 지역으로 여행 할 때 필요하다.

## 필수 의약품

가장 좋은 것은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비행시 만약을 대비해 진통제 등을 준비한다.

## 손 청결제

여행에서 청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바이러스와 균을 피하려면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청결제를 준비해둔다.

## 머리빗과 헤어밴드

장거리를 여행하는 경우 머리는 항상 엉망이 되기 마련이다.

## 헤드폰

비행기에서 무료 헤드폰을 나눠주지만 항상 좋지 않다.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에 몰두할 수 있다.

## 포터블 배터리

장거리 여행시에 컴퓨터 및 핸드폰의 배터리가 항상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서류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때 배터리는 필수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 코드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 물병

장시간 여행시에는 물병을 가지고 가서

승무원들에게 물을 채워줄 것을 당부한다. 납작하게 접을 수 있는 물병이 좋다.

## 껌

기압에 따라 귀가 멍멍해지는 사람들에게 휴잉껌은 좋은 재료다. 또한 입냄새를 없애주고 멀미도 막아줄 수 있다.

## 물수건

물수건은 항상 주의를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좌석이나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 좋다.

## 스낵

오랜시간 동안 비행을 위해서는 스낵을 준비한다. 스낵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행편은 괜찮지만 스낵에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 **코리아** + Ch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 1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0월 한달동안 새벽 요가 챌린지를 계획했어요. 제 한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 10-20분 분량의 새로운 요가와 운동 영상이 격일로 업로드 될거예요. 평소보다 10분정도만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개운하게 아침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 1. Downward Facing Dog (견상자세)- 전신 스트레칭

1단계 네발기기, 즉 테이블 탑 자세에서 무릎을 떼어 엉덩이를 하늘 위로 쪽 올려줍니다.

2단계 사진처럼 열손가락을 부채처럼 쭉 펴서 손가락 마디마디 간격을 넓히고 손가락 뿌리도 강하게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3단계 머리는 두 팔 사이에 두고 목의 긴장을 풀고 척추와 다리를 곧게 뻗어줍니다.

TIP!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꿈치



를 뺀 상태를 유지하고 무릎을 접고 진행해주세요. 단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 2. Chaturanga (차투랑가)- 코어, 팔근력 강화

1단계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려 내려갑니다.

2단계 가슴과 정수리, 그리고 체중을 앞으로 보내는 동시에 발꿈치를 뒤로 밀어줍니다.

3단계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무릎 가슴 턱 순으로 내려가도 좋습니다.

TIP! 목이 짧아지지 않게 어깨를 최대한 뒤로 보내고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 3. Cobra or Upward-facing Dog

1단계 바닥에 있던 가슴을 들고 앞으로 보내며 코브라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2단계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코브라), 바닥에서 떼고(업독) 몸의 앞면의 공간을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3단계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시선은 정면 혹은 천정을 바라봅니다.

TIP!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두손을 좀더 앞에 가져가 허리의 신전을 안전하게 진행해줍니다.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유튜브도 볼시간 라이브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시범교정도 받고 싶으신가요?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신청하고 싶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연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남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트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송하연, 요가치터/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INOFF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diverse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매사추세츠 건강보험료 내년 7.6% 또 인상

## 매사추세츠 커넥터 보험 구입시 적용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8만6천여 명의 주민들은 내년도 보험료가 7.6% 인상된다. 이로써 커넥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부터 최소 31% 이상 올랐다.

보험료 인상은 올 겨울 가스 및 전기 요금의 폭등과 더불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가격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주민 중 연방 빈곤선 300%(개인 \$40,770 미만, 4인 가족 \$83,250 미만)미만은 커넥터케어(ConnectorCare)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커넥터케어는 오바마케어 및 주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현재 주내 14만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료는 2023년 까지 한달에 약 \$3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매스헬스(Masshealth)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없

거나 아주 저렴하다. 현재 약 2백만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건은 주 보험부가 승인한 후 9월 8일 헬스 커넥터 이사회(Health Connector Board)가 이를 재검토 했다. 튜스 헬스플랜-디렉트(Tufts Health Plan-Direct)의 경우 5.5%가 인상되며 헬스뉴잉글랜드(Health New England)의 경우 11.9%가 인상된다. 보험료는 연장자 일수록 더 높게 인상된다.

일례로 올해 11월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2023년 헬스커넥터 건강보험의 실버플랜의 한달 보험료는 \$449.09에서 \$674.73에 달한다. 이 플랜들의 경우 디덕터블이 수천달러에 달해 보험이 커버하기 전 상당한 금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코페이도 해야 한다.

커넥터의 저가 보험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에 따라 31%에서 75%까지 급등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낸터킷과 케이프 코드이며 적게 오른 지역은 에섹스 미들섹스, 우스터 카운티이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나 의료혜택의 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인상 여부였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이 조사에 따르면 41%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50.8%, 54.9%로 훨씬 가격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매사추세츠 주 상당수의 주민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받고 있지만 파트타임,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은 커넥

터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일부 커넥터 케어 건강보험 구입자들(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게 텍스크레딧이 주어진다. 약 3만4천명은 이 크레딧의 자격이 된다.

텍스크레딧은 사는 소득, 나이 그리고 사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미구제계획법에 따라 추가적인 텍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원된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커넥터 보험은 좀더 저렴해진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11회 모금 리셉션



ARTIST of the YEAR - 제영신



미술품 및 레슨 등 서비스 판매

10월 16일 (일) 오후 3:00-5:30

AD Herzel 축하

올해의 작가 - 제영신

장구 연주 - 박지혜



박지혜



3시-5시반 자유로이 방문해 주십시오

WESTIN HOTEL  
CONCORD BALLROOM  
70 THIRD AVE, WALTHAM, MA

WWW.KCSBOSTON.ORG

# 미국 힘 빠졌나...사우디 감산 퇴짜에 '세상 변했다' 관측

### 산유국들, 러시아와 손잡고 유가 떠받치기 모양새 미 "걸프국은 중·러와 한패" 볼멘소리...일각선 "경기침체 대비책일 뿐"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굴욕도 감수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잇따라 무시당하자 외교 정책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사우디의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했음을 방증한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비회원 산유국도 임인 OPEC+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결정은 그대로 미국에 대한 모욕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국의 걸프 우방국 발언권이 큰 OPEC+에는 러시아가 추가 제후국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감산이 합의된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서방의 제재를 받는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참석했다.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약화하기 위해 다른 산유국과 협력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다.

이런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폭의 감산이 이뤄지자 사우디, UAE가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통제해 전쟁자금 수

혈을 막으려 했으나 그간 고유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방은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 등 향후 대러 제재와 불가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데 OPEC의 협조가 절실한 터라 더욱 신경이 곤두선다.

게다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물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번 합의는 바이든 정권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번 감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CNN방송에 따르면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국 국무부 에너지안보 특사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이번 합의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사우디의 공개적 퇴짜 앞에 당장 백악관에서는 분노를 겨우 억제할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OPEC+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는 게 확실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쏟아졌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트위터에 "인권 유린, 터무니없는 예멘 전쟁 등에도 걸프국에 무기를 팔지만 이들 국가는 국제 위기가 닥쳤을 때 미



올해 7월 빈손귀국 논란 부른 바이든 사우디행

국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사우디가 미국을 등치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려 한다면 무기나 항공기 부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의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이미 확인된 시류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월 사우디를 찾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증산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다

바이든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해 거리를 두다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찾아가는 굴욕을 감수했지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사우디행 때문에 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사우디의 행태를 두고 시대가 변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쓰러린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우호관계나 외국의 공격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사우디에 호의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합의가 미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OPEC+의 이번 결정은 회원국들이 목표 생산량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할당될 감산량은 이미 제재에 따른 생산 부진으로 현실에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때문에 이번 OPEC+의 결정에

도 국제유가는 오르기는 했으나 크게 치솟지는 않았다.

OPEC+의 감산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번 감산은 징벌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 글로벌 석유 수요의 급감을 불러올 경기침체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실제로 지난달 투자는 골드만삭스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일제히 인상함에 따라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 것이라며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125달러에서 10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포린 리포트의 석유산업 전문가인 매슈 리드 부회장은 "사우디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러시아의 시장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자유롭고 적나라한 날 것의 언어...노벨문학상 에르노의 작품세계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문학적 태도 드러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문학이라는 장르에 끊임없이 질문 던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송광호 기자 = 6일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니 에르노는 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 소설가다.

또한 프랑스 문학에서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하층민과 중하층의 일상을 다루는 한편, 그들 일상이면에 있는 사회적·역사적 구조를 조명했다.

그는 사회·역사·문학과 개인 간의 관계를 예리한 감각으로 관찰하며 문학적 가공과 은유도 없이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소신대로 그는 작품에서 인간의 욕망과 날것 그대로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곤 했다.

데뷔 초창기에는 빈곤층 출신의 여자가 성장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멸감과 소외의식에 관해 주로 썼다.

‘빈 장롱’, ‘그들의 말, 혹은 침묵’, ‘얼어붙은 여자’ 등의 작품에서 그는 자유분방하고 적나라한 언어로 이 같은 감정을 표현했다.

1984년 발표해 르노도상을 받은 ‘

자리’는 글쓰기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된 작품이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소설을 쓰려다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사실에 근거한 진솔한 감정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이재룡 숭실대 명예교수는 “자리 이후부터는 소설이라는 명칭이 그의 작품에 표기가 안된다”며 “이후 일상에 숨겨진 보편적 인간의 조건을 다루는 작품들을 써나갔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 문단 사이의 여백, 단숨에 독자의 관심을 끄는 첫 대목, 담담한 문체까지, 에르노 특유의 문체적 특징도 이때 형성됐다.

아울러 오로지 사실만을 기록하고자 애쓰며 기억의 확실성을 저울질하는 자기성찰적인 문학적 태도도 확립됐다.

때론 선정적이고 사실적인 내면의 고백 탓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1991년 발표한 ‘단순한 열정’이 대표적이다.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서술의 사실성과 선정성 탓에 출간 당시 평단과 독자층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스웨덴 한림원은 6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82)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아니 에르노를 촬영한 사진.

작가는 소설에서 임상적 해부에 버금가는 철저하게 객관화된 시선으로 ‘나’라는 작가 개인의 열정이 아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열정을 분석했다.

‘단순한 열정’이 발표된 지 10년 후 출간된 ‘탐닉’도 꾸준한 인기를 끈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정확함에 대한 열정, 완전무결한 단호함 속에서, 아니 에르노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작가의 주제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선집 ‘삶을 쓰다’도 주목해서 볼

만하다.

수록작 중 성적인 모험을 다룬 ‘카사노바 호텔’은 에르노가 천착한 주제인 에로스(성적 욕망 등 삶의 본능)와 타나토스(죽음의 본능)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에르노는 종종 정신 질환자가 돼 홀로 죽음에 다가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기 위해 육체적 경험에 집착한다.

이 밖에 질투라는 감정에 점령당한 한 여자의 모놀로그를 그린 ‘집착’, 굴곡 많은 삼십여 년간의 문학적 도정을 살펴본 대담집 ‘칼 같은 글쓰기’, 낙태의 경험담을 담은 ‘사건’ 등

이 눈길을 끈다.

강유정 문학평론가는 에르노의 작품과 관련해 “여성작가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과감하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재룡 교수는 “그의 문체는 ‘납작한 문체’ ‘평평한 문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미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마치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다”고 했다.

buff27@yna.co.kr

THE PRO REALTY GROUP

#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공천 어려울 듯

기존 6개월 더해 2024년 1월까지 정지...즉시 효력에 국민의힘 대표직 상실  
이양희 윤리위원장 "가처분 제기·당 소속의원 등에 모욕·비난 표현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건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 권유' 결정을 할 것이라 관측이 나왔으나,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가 처분 인용 가능성 및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강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징계 수위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 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30일 의원 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3차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거론,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소속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리위는 이런 사유를 종합해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어떻게 대응할거냐는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이준석 당원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시작 바로 전까지 당무감사에서 대리인에 출석을 다시 요청했고, 정확히 (출석 요구 시

간이던) 오후 9시부터 심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윤리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yjikim84@yna.co.kr DJY@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7th - OCT. 13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 EGG-STREMELY ADDICTING: KOREAN MARINATED EGGS

This recipe for soft-boiled marinated eggs will have you hooked, and to no surprise because this dish is known as an extremely addictive egg banchan in Korea! Watch these eggs turn a delicious golden brown as they soak in a sweet and savory soy sauce-based marinade, then have them with a hearty bowl of rice for a taste of true euphoria.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 없는 맛! H 마트와 함께 식탁 밥도둑, 손가락을 안멈추게 하는 간장 계란을 만들어보세요!



<b>ZESPRI SunGold Kiwi</b> 제스프리 섀플드 키위 BOX <b>\$26.99</b>	<b>Kabocha 단호박</b> LB <b>\$1.49</b>	<b>Niabella Lago Grape</b> 니아벨 라고 포도 3 LB/PKG <b>\$11.99</b>	<b>Stem Tomato</b> 스템 토마토 LB <b>\$1.29</b>	<b>Korean Wonhwang Pear</b> 한국 원황배 3 CNT/PKG <b>\$12.99</b>
<b>Green Papaya</b> 그린 파파야 LB <b>\$1.29</b>	<b>Washington Fuji Apple</b> 워싱턴 후지사과 LB <b>\$1.99</b>	<b>Yellow Papaya</b> 옐로우 파파야 LB <b>\$1.49</b>	<b>SOONYEOWON Tofu</b>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1.49</b>	<b>White Cabbage</b> 화이트 캐비지 LB <b>\$0.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b>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b>\$9.99</b>	<b>Fresh Pork CT Butt Chunk</b> 수육용 생 돼지목살 LB <b>\$6.99</b>
<b>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b> 생 돼지 등갈비 LB <b>\$5.99</b>	<b>Fresh Boneless Chicken Thigh</b>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
<b>Frozen Beef Short Plate</b> 냉동 소 삼겹 양지 SLICED/LB <b>\$12.99</b>	<b>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b> 양념 LA 갈비 SLICED/LB <b>\$16.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SHINWHA Stone-Plate Grilled Squid and Shredded Filefish Set</b> 신화 맥반성 오징어 & 쥐포 구이채 7.05 OZ/PKG <b>\$10.99</b>	<b>Frozen Loligo Squid</b> 냉동 한치 20-25 CM/LB <b>\$5.99</b>
<b>HWAWOODANG Frozen Stir-fry Octopus/Cuttlefish/Squid</b> 화우당 낙지/갑오징어/오징어 볶음 SPICY/12.69 OZ/PKG <b>\$5.99</b>	<b>Headless White Shrimp</b> 머리없는 흰새우 26-30 SIZE/LB <b>\$6.99</b>
<b>Headless Tiger Shrimp</b>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21-25 SIZE/LB <b>\$10.99</b>	<b>Fresh Salmon Steak</b> 연어 스테이크 LB <b>\$7.99</b>

### SMART CARD MEMBER ONLY

<b>OTTOGI Jin Ramen</b> 오투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b>\$14.99</b>	<b>CJ Hetbahn Cooked White Rice</b> CJ 햅반 7.4 OZ X 12 EA/BOX <b>\$12.99</b>
<b>HAIO Pancake/Frying Batter Mix</b> 해오름 부침/튀김가루 2 LB <b>\$1.99</b>	<b>HAIO Yuza Tea with Honey</b> 해오름 유자차 2.2 LB <b>\$5.99</b>

<b>ORGANIC FARM Organic Sweet Rice</b> 유기농장 유기농 찰쌀 15 LB <b>\$37.99</b>	<b>RAW NATURE Organic Black Rice</b> 자연담은 유기농 흑미 4 LB <b>\$9.99</b>	<b>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b> 팔도 비빔면 4.58 OZ X 5 EA/PKG <b>\$4.99</b>	<b>PULMUONE Dried Seaweed</b> 풀무원 진국미역 3.52 OZ <b>\$4.99</b>	<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b>\$17.99</b>
<b>HAIO Seasoned Fried Bean Curd Pockets</b> 해오름 유부초밥 박사 12.6 OZ <b>\$3.99</b>	<b>FOODCELL Asian Style Starch Noodles</b> 푸드셀 궁중당면 1.5 LB <b>\$2.99</b>	<b>HAIO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b> 해오름 메밀국수 3 LB <b>\$4.99</b>	<b>HAIO Canned Bai Top Shell</b>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b>\$5.99</b>	<b>SPAM Classic/Lite</b> 스팸 클래식/라이트 12 OZ <b>\$3.49</b>
<b>ORGANIC FARM Chestnut Roasted</b> 유기농장 까먹는 군밤 5.29 OZ <b>2\$3</b> FOR	<b>HAITAI Ace Cracker</b>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58 OZ <b>\$3.99</b>	<b>Check Pattern Seat Cushion</b> 잔체크무늬 방석 47 X 47 CM PINK/MINT/GREY -\$11.99 <b>\$8.99</b> EA	<b>KITCHEN ART Stainless Sieve</b> 키친아트 스텐 체망 -\$7.99 MEDIUM -\$9.99 LARGE <b>\$5.49</b> EA <b>\$6.49</b> EA	<b>HELLO! Lunch Jar</b> 헬로! 보온 도시락 1800 ML -\$47.99 <b>\$35.99</b> SET

##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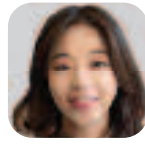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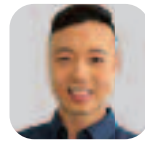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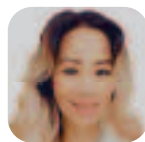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enjamin Fiorentino**  
617.775.9583  
ben@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NY and GA





#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 WEEKLY SPECIAL



#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UNMATCHED PRICE**

푸짐하게, 특별하게, 대박싸게, 오늘 저녁은 대게!

# 스노우 크랩

FROZEN COOKED SNOW CRAB

October 6th - 13th, 2022



## 앵콜 세일!



10UP SIZE

~~Reg. \$29.99~~

# \$17.99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mailto: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http://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http://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행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30

##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ne's (Doubly) Parish in Boston, MA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살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 617.254.4654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mailto: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http://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골프 레슨



##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mailto:sj.usgtf@gmail.com)

# 857.600.6755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05) 인간은 감정의 동물

인간은 감정의 동물임에 틀림이 없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한국방송에서 혼자 사는 노총각이 먼 거리에서 빵조각을 집어 던져 정확하게 토스트 기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 두 손을 마주치며 한바탕 웃는다. 그런 순간도 잠시 부모와 헤어져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슬픈 장면이 나오면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른다. 이런 감정의 결과는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의 이러한 감정(Emotion)은 재정적으로 치명타가 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가 전부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보니 100% 현금이다. 자신에게 물어본다. 현재 있는 현금으로 하루 전에 있었던 주식을 다시 살 것인가? 대답이 ‘아니다.’ 라고 하다면 현재 ‘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를 생각해 봐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옛날 숫자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집을 \$500,000에 샀다고

하자. 어떠한 이유로 팔려고 한다. \$450,000으로 오퍼(Offer)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 집을 팔기가 어렵다. 손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나간다. 새롭게 다시 들어온 오퍼는 \$400,000으로 더 떨어졌다. 6개월 전 \$450,000에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파는 것을 포기하고 산 가격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는다.

이유가 있어서 내려간 가격이 다시 본전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인식을 못 한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목이 훨씬 좋은 결과(Opportunity Cost)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은 본인의 쓰러린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는다. 현재 시장 가격에 충실할 뿐이다.

이성적으로 주식은 가격이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식이 폭락하면 많은 투자자가 팔기에 이들을 따라서 판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군중심리로 불안함을 대신하는 것이다. 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경제가

불안하며 어수선하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망설인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가격이 비싸지기를 기다렸다가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000년 인터넷 거품, 2008년 금융대란, 2020년 팬데믹, 등을 지내면서 쌀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 모든 것이 감정 때문이다. 골프 클럽을 잡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잡으라는’ 말을 귀아프게 듣는다. 그러나 마음의 감정으로 힘이 들어간다. 이런 날 골프는 ‘죽 썬 날’ 로 되지만, 감정에 의한 주식투자는 ‘노후대책’ 을 매우 어렵게 한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Benefit)도 함께 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까지 투자한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된 투자이기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오랫동안 본인이 몸담은 회사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나의 회사를 위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 ‘이해하는 회사경영’ 등 여러가지 이유로 투자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의 동물인 우리는 좋아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 돌려달라’ 고 한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했던 그때 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옛날이 그리워진다. 주식투자도 비슷하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하기에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는 과정은 알 수 있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도박의 결과로 나타난다. 대박을 바라면 그 반대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막연한 희망을 기대하면 그냥 희망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감정(Gut Feeling)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투자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의 결과는 현재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6세 풍월주風月主 진공眞功(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마음이 험악하고 간사한 꾀가 많아 사람들이 모두 꺼렸다’ 라고 평가된 흠돌은 이모 姨母 문명왕후(태종무열왕의 비)의 권세를 믿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 중의 하나가 보룡의 딸 자늘(또는 자의慈義)을 강제로 데려와 첩으로 삼으려 했다. 보룡은 자의가 흠돌의 첩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를 보룡의 남편 김선품의 사망연도와 풍월주 재임기간을 통해서 고증해 보면, 진덕여왕의 말년인 64년 경이다. 64년 보룡은 남편 김선품과 사별하였다. 선품은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남기고 곧 병사하였다.402

20세 풍월주 예원이 ‘누이 보룡을 처로 삼게 하여 풍월주를 물려주었다’ 는 기록으로 보아 선품은 24세 전(무렵)에 보룡과 혼인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흠돌이 아름다운 자의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자의는 20세 가량이었다. 보룡이 남편 김선품을 잃을 당시인 64년, 장녀 자의는 10세 정도였다. 그리고 차녀 운명, 삼녀 야명, 또한 외아들 순원順元이 있었는데, 아마도 순원은 갓 태어났을 것으로 보인다.403

그렇게 어린 자녀 넷을 데리고 청상과부가

된 보룡은 김춘추/문희가 家로 들어가 선원전 군仙元殿君의 유모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자의는 점점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김법민의 눈에 들어왔다. 김춘추의 장남인 법민은 후일 태자가 되었고, 66년 무열왕 김춘추가 죽자 제 30대 문무왕이 되었다. 법민이 태자시절 태자비가 된 자의는 물론 왕비가 되었다.

흠돌은 이모 姨母가 낳은 선원전군의 유모 乳母 보룡의 딸이자 편모 슬하에서 자란 자의를 만만하게 보고 첩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는 태자(가 될) 김법민이 자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룡도 곧 당원전군 幢元殿君(404) 을 낳았는데 당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흠돌은 모르고 있었다. 당원의 아버지는 김춘추이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에 앞서 흠돌은 자의의 아름다움을 알고, 보룡의 어리석음을 속이고 (자의를) 첩으로 삼고자 했으나 보룡이 막았다. 얼마 안 있어 보룡이 당원전군을 낳았다. 흠돌은 사람을 시켜 보룡의 추함을 떠들게 하여 위협했다. 대개 보룡에게 (태종 무열왕) 왕의 총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의가 태자비가 되자 흠돌은 장차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의가 덕이 없다고 헐뜯어 하여 궁지로 몰았다. 그때 흠돌은 문명왕후의 조카였다. 그러므로 권세가 내외를 압도했다. 자

의궁慈義宮은 마음을 졸이며 조심했다. 흠돌이 문명후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자의가 후일 후사가 되어 아들을 태자로 세우면 대권이 진골정통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므로 가야하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신광信光을 일찍 태자비로 삼아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했다. 신광은 유신공의 딸로 태자의 첩이 되었다.]

656년 진공은 풍월주의 위를 흠돌에게 물려주고, 삼국통일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668년 그는 고구려를 멸망하는 과정에서 세운 전공으로 2관등을 승진하여 대야찬(5등급)이 되었고, 670년 나당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파진찬(4등급)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말년에 역심을 품고 김흠돌, 김군관, 김흥원 등과 반란을 준비하였다. 신문왕은 681년 즉위와 함께 상대등 김군관을 병부령으로 강등하였고, 이에 조금만 김흠돌은 진공, 흥원과 함께 난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여 처형당했다.

402) 보룡의 남편은 21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선품인데 그는 이립而立의 나이를 넘기고 얼마 후 병사하였다. 김선품은 608년 경에 태어나서 21세 풍월주(634~637년) 를 지낸 후 선덕여왕 재위시 사신으로 당나라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온 후 곧 사망하였다(643년). 그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보룡은 12세 풍월주 김보리의 딸이자 20세 풍월주 예

원의 동생이다. 보룡과 선품은 632년 경에 결혼하였다.

403) 643년 남편 김선품이 병사한 후 곧 보룡이 문명태후가 낳은 아들 선원전군의 유모가 된 기록으로 보아 순원이 그때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문명태후는 태후가 아니었다. 무열왕 김춘추가 654년 왕위에 올랐기에 아마도 왕비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명왕후가 선원전군仙元殿君을 낳았다! 전군이란 왕이 왕비가 아닌 후궁에서 얻은 아들이나, 왕비가 왕이 아닌 다른 남자로 부터 받은 아들에 봉하는 호칭이다. 삼국사기 등 기타 사서에는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선원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다. 다만 화랑세기에서만 등장한다. 즉 선원의 아버지는 김춘추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 김춘추와 김문희는 625년 결혼하였다.

404) 선원전군은 아찬(6등급)의 관등으로 690년(신문왕 10년)에 중시가 되었다. 당원은 이찬(2등급)의 관등으로 696년(효소왕5년)에 중시가 되었다. 대야찬(5등급) 순원은 당원의 후임으로 698년(효소왕7년)에 중시가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우리집 구석구석 **쿠쿠**로 센스있게

# 가을맞이 업**쿠**레이드

기간 | 09.29.2022 - 10.27.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10월 내 설치

## 풍성한 10월 특별 혜택

일시불 구매시 **10% 할인**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추가 구매시 **50% 할인\***  
2대 이상 렌탈/구매 시 LED 마스크 **50% 즉시 할인**

## 안마의자 전용 혜택

임페라토르 4D: **\$800 상당 LED 마스크 증정**  
듀크 스마트 3D: **\$375 상당 초강력 공기청정기 증정**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 구매 시 **최대 \$2,000 할인**

### 3대 렌탈/구매 시



**\$590**  
상당

####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CRP-JHSR0609F | 6인용

### 2대 렌탈/구매 시



**\$260**  
상당

#### 쿠쿠 압력밥솥 증정

CRP-RT0609FW | 6인용

### 1대 렌탈/구매 시



**\$150**  
상당

#### 쿠쿠 제빵기 증정

CBM-AAB101S

NEW



## Nello 트윈팬 펫드라이룸

목욕 후, 산책 후, 낮잠까지 편안하게!

Twin-fan 회오리형 입체바람으로 건조

상단 필터부 오픈으로 쉬운 훈련과 적응

수면모드로 안락한 하우스 활용 가능

산책 후 오염물질, 에어샤워로 제거

이음새 최소화로 청결한 사용

하단 바퀴로 이동, 청소 편안한 사용

정상가 ~~\$999~~  
런칭특가 **\$799**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조기 소진 시 동일 가격대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등의 추가 구매와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프리미엄 제품: 정수기 MN모델 외, 전제품 | 공기 청정기 D,F모델  
LED 마스크 프리미엄 | Nello 트윈팬 펫드라이룸  
•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제빙기  
\*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2/4/6/8대째 구매 시 할인 50% 적용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http://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http://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남의 집과 비교하지 말라

불행하고 싶으면 비교를 시작해라.

시기, 질투는 인간의 악덕 중에서도 최악이라 생각된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질투로 인해서 서로 정을 가르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30년지기 친구도 시기 질투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대학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에게 실험을 실시했다. 원숭이들이 벨을 울리면 간식을 주었다. 벨을 울리는 원숭이들에게 오이 한 조각씩을 주었다. 모든 원숭이들이 만족하면서 오이를 먹었다. 그러다가 실험자가 특정 원숭이에게 포도를 주기 시작했다. 즉, 특정 원숭이는 벨을 울리면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는 오이를 준 것이다. 그랬더니,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포도를 받은 다른 원숭이와 자신의 오이를 비교하더니, 성질을 내면서, 오이를 실험자에게 던졌다. 포도를 주지 않으면 차라리 오이도 먹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보다 오이를 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러나 옆 원숭이와 비교를 해보니, 오이를 먹는 것이 굶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숭이는 내내 굶으면서, 옆 원숭이를 미워하고, 화난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다.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등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은 사실상 현대의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다. 물론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잘 난 친구 아들을 비교해서 생긴 말이다. 본인도 자라면서 늘 비교되었던 친구가 있었다. 어머니는 늘 “A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더라. A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입상했다더라. A는 여자애들이 너무 연락이 와서 걱정이라. 그런데 중년이 된 지금 바라보니, 나와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 같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 분발하자. 잘 하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부정적 느낌이다. 그리고 이 부정적 느낌은 열등감이라는 무서운 정신적 상처로 발전할 수도 있다. 더 우스운 것은,

원숭이의 실험에서처럼, 논리적 접근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형이 너무 잘나서, 늘 비교 되는 동생은 항상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실제로 동생은 누워서 잘 수 있는 집,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 매끼 먹을 수 있는 수입이 있기에 불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행한 이유는 ‘형보다 넓은 집, 형수보다 스피크 좋은 와이프, 조카들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먹을 수 없는 고급음식’ 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은 비교가 그다지 팽배하지 않은 사회이다. 동창의 사회적 성공은 시기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축하받을 일이다. 지인이 로또가 당첨되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회다. 이런 관점은 환경에서 구태여 비교를 통해서 불행을 선택하는 일은 어리석다 하겠다. 동호회에서 지인이 큰 주택을 샀다면, 축하해주고, 동창회에 친구가 벤치리를 맡고 왔다면 같이 기뻐해주면 된다. 우리는 원숭이보다 나은 인간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미국 에이전트와 일년을 집을 보고 못

사신 손님 한 분이 “제 친구는 이런 집을 재작년에 얼마 주고 샀는데” “그럼 2년전으로 시간을 돌려 놓으시면?” 이 나의 답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월 9일 - 10월 1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b></p> <p>●운수: 그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이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5일 길일, 9, 11일 주의.</p>	<p><b>소띠   행복하고 편안한</b></p> <p>●운수: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p><b>범띠   적당한 선에서</b></p> <p>●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2,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토끼띠   한 걸음 물러서서</b></p> <p>●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겠습니다.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용띠   해결의 실마리를</b></p> <p>●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b>뱀띠   조금씩 이루어지는</b></p> <p>●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말띠   미리 대처하는</b></p> <p>●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양띠   애정이 더 깊어지는</b></p> <p>●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b>원숭이띠   차분한 마음으로</b></p> <p>●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5일 주의.</p>
<p><b>닭띠   현실에 만족하고</b></p> <p>●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득이 따릅니다.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b>개띠   가슴을 활짝 열고</b></p> <p>●운수: 원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2일 길일, 9, 15일 주의.</p>	<p><b>돼지띠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b></p> <p>●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4일 길일, 10, 11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슈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복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ENA '얼어죽을 연애따위' PD "작품 보면 연애세포가 펄떡 났" 것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현실주의 로맨스를 그린 ENA 수목드라마 '얼어죽을 연애따위'가 시청자를 찾는다.

연출을 맡은 최규식 PD는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실에 기반해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연애와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면 연애 세포가 펄떡펄떡 났"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얼어죽을 연애따위'는 20년 지기인 구여름(이다희 분)과 박재훈(최시원)이 연애 리얼리티쇼 PD와 출연자로 만나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그린다.

최 PD는 "드라마 속에 연애 리얼리티쇼라는 또 다른 드라마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 차별점"이라며 "연애 감정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강하고 독한 연애 예능이라는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PD는 연애 리얼리티쇼를 실감 나게 구현하기 위해 ENA '나는 솔로' 촬영장을 견학한 사실을 들려주며 "촬영장에 가보니 (출연진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보여주더라. 그런 리얼리티 적인 요소들 (드라마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극중 연애 예능 '사랑의 왕국'을 연출하는 구여름 PD는 배우 이다희가 연기한다.

이다희는 "30대 후반 여자



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인물이라 내 얘기 같기도 했다"며 "남사친(남자인 친구) 박재훈을 보며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리만족을 했다"고 떠올렸다.

또한 "그동안 차갑고 껄끄러운 역할을 자주 맡아서 시청자들이 저를 보면 차가운 이

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번 역할은 주변에 있는 언니 같은 친근한 역"이라며 "제 실제 성격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구여름과 로맨스를 그리는 성형외과 의사 박재훈 역에는 최시원이 나선다.

최시원은 "의사 역이라 전

문용어가 있는 대사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며 "의사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환자들이 놀라지 않게 '따끔'이라는 말을 미리 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연기했다"고 전했다.

5일 오후 9시 첫 방송.

coup@yna.co.kr

## 수지, 가수로 돌아온다...자작곡 '케이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가 6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 자작곡 '케이프'(Cape)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3일 밝혔다.

'케이프'는 올해 2월 디지털 싱글 '새틀라이트'(Satellite) 이후 7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이 노래는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수지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밴드 사운드와 일렉트로닉 기타 위주로 편곡했지만 어쿠스틱 느낌을 살려 색다른 분위기를 냈다.

수지는 이번 신곡도 전작 '새틀라이트'에 이어 일기예보·리브홀릭 출신 음악 프로듀서 강현민과 작업했다.

tsl@yna.c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부드러운 강함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 서로에게 건네고 받고 오고 가며 살아간다. 서로에게 마음을, 몸을, 사랑을, 기쁨을, 행복을, 정을, 우정을 때로는 미움과 질투를 그리고 물질일 때도 있다. 여하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우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 것일까. 이왕이면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다. 서로에게 보채지 않는 기다림의 마음으로 바라다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보니 내 곁에는 그래도 서너 명쯤 편안한 이들이 있어 행복이 물려온다.

세상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면 언니든, 동생이든 정말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순간에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찰나이다. 어찌 저리도 알뜰하고 뽄뽄하고 살림꾼인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무얼 했던가 싶은 때가 참 많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느끼는 부러움이 또 있다니 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위로해준다. 그래, 모두가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일까 말이다. 서로가 다

르기에 더욱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까닭인 게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러움과 칭찬을 해주는 일 말이다.

나무숲에 들어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때로는 큰 나무들이 바람을 타며 일으키는 소리는 금방이라도 나무가 쓰러질 듯 무서운 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나 나중에 소리가 가라앉은 후 생각해 보면 나무가 바람을 타고 놀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람을 불러 제 몸의 흥겨움을 누렸다는 생각을 말이다. 세상 사는 일은 이렇다, 저렇다 할 정답이 따로 없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남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이라면 결과가 어떻더라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자연에게서 늘 배운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 어찌 저리도 제 역할에 충실한지, 남의 일에 별 상관을 하지 않는지. 내 모습 그대로 싹틔우고 꽃피우고 열매 맺고 땅에 떨어져 제 길을 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

빛에 고개 내밀고 달빛에 고개 떨구며 그렇게 매 순간을 순응하며 산다. 가끔 생각한다. 나는 왜 자연처럼 저리 순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핑계 대며 사는가 싶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한참을 마주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쓴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씻겨내린다.

옛그제는 골프 라운딩 중에 노랗게 핀 들꽃과 함께 하얗게 핀 안개꽃 들판을 만났다. 마음이 쿵쾅거린다. 어찌 저리도 아름다울까. 누구를 위해 핀 것이 아닌, 그저 저들은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가슴이 찡해져 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내 몫인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잘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 잘살고 있는가 물었다. 그것은 창조주가 빚어주신 목적에 맞게 피조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여리여리한 저 들꽃과 들풀들이 바람을 타며 놀고 있다. 부드럽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제 역할과 몫을 다하고 있다. 사람도 마

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보여지는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함을 지닌 분들이 많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깊은 속 이야기 꾸러미들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것이다. 그 속의 꿈과 소망이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와 지금 실천하며 이루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보물인 것이다. 그 속 깊이에 담긴 보석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늘 자연의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뿐만이 아닌 사람들(남,녀,노,소)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고 말이다. 나 아닌 남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누군가와 만나 나눔을 일기처럼 써보는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어찌 그리도 많이들 갖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의 문을 여니 그들이 더욱 사랑스럽고 미더워졌다. 부드러운 강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이 참 아름답고 고마웠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우리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광화문 글판이 바뀌었다. 나역시 매계절 새 글판을 기다린다. 이 가을 글귀이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또는 별이든...' (강은교, 빗방울 하나가 중에서)

송창식 노래가 떠올랐다. 유튜브에서 찾아 들었다. 듣는 즐거움은 여전했는데, 가사만 그대로 읊는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수 있는 우리는  
(송창식, 우리는 1절 가사)

우리의 상대편엔 당신 (You)이 있다. 당신 없는 우리는 없을 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문이다. 명문이라 하던데, 과히 나쁘지 않다. 마지막 구절은 비장하다.

Cold, hunger, darkness and thirst are not as scary and deadly for us as your 'friendship and brotherhood'. But history will put everything in its place. And we will be with gas, light, water and food ... and WITHOUT you!

(추위, 배고픔, 어둠, 목마름조차 너희가 말하는 '우정과 형제애' 만큼 무섭고 끔찍하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스, 전

기, 물, 식량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 없이!)

우리. We 인데, 성경에도 보인다. 이 말씀은 영어로 읽는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work.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9). 머리 하나 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다. 60여년을 기다린 황태자였던 윌리엄 3세가 왕관을 썼다. 그런데 새 국왕에 대한 영국민의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모양이다. 심지어 'NOT My King' 이라고도 한다니 말

이다. 불경스럽게 들리는데, 영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여왕님은 다른듯 하다. 몇년 전 영화로도 만들어 졌다고도 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다. 'Our Queen' (우리 여왕님)

그리고 보니 우리라는 말은 입과 귀에 익었다. 시에서도, 가요에서도, 연설문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오니 말이다. 없는 곳이 없는데, 과연 오늘도 유효한가. You 보다 We가 먼저.

요사이에도 북한에선 우리식으로 라는 말을 즐겨 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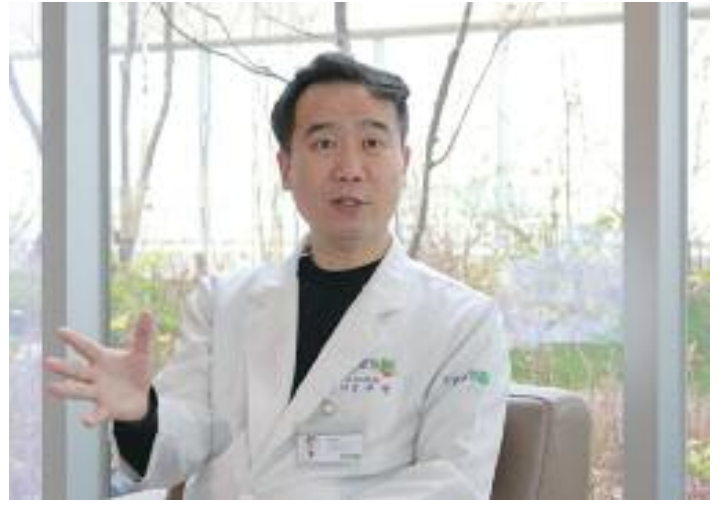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전도서 4:9)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 부민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병력 고려한 종합검진 받아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김 상혁 종합건강증진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 건강검진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혈액검사, 내시경을 넘어 유전자 검사까지 항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김 상혁 종합건강증진센터장은 "개인에 따라, 개인 병력, 가족력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검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강검진 관련 일문일답.

◆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대장 내시경, 복부 CT 등을 많이 하고 심장 쪽을 보기 위해 심장 초음파, 심장 정밀 CT 등 정밀 검사를 많이 한다. 최근엔 여러 가지 분자 단위의 검사들이 많이 나와서 찾는 분들도 많다. 유전자 검사도 많이 한다. 암세포가 내보내는 소량의 DNA, 단백질, 호르몬 등을 검출해

서 조기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령대별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검사 항목은.

검진의 시작 연령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특별한 가족력과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검진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40세 이후부터는 위내시경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30~50대 가임기 여성은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가 필요하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용종을 발견해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 50세 이상부터는 보통 최소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상, 체중감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건강검진을 빨리 시작한다면 어느 연령대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은가.

30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20대에서도 받아야 한다. 제가 오랫동안 검사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20대, 또는 30대 초반에서도 대장암 위암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검사를 일찍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도 많이 시작한다. 30대부터 검진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 건강검진 항목 선택시 고려할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건 가족력이다. 검사를 할 때 할

아버지나 할머니 쪽 또는 부모님 쪽에 머리 쪽 혈관 문제나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MRI를 찍어보거나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암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엔 해당하는 암 종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검진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통 암이라는 게 오늘 안 발견되더라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이 발견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암종류나 질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보는 게 좋다. 보통은 검진을 하다 보면 권장되는 주기를 안내한다. 그 주기에 맞게 계속 검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유전자 검사 수요가 늘고 있는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끝이 없어지면서 기술이 발전과 동시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졌고,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한국인에서는 특이 유형의 유전자의 변형이 있으면 특정 암 또는 질환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내가 혹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 위험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 검사해보는 경우가 많다.

◆ 미래에는 어떤 검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현재 시행되는 검사가 준비와 검사 받기도 힘들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식이 조절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검사 하루 전부터는 금식하면서 장을 비우기 위한 관장약을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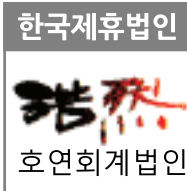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시경을 통한 검사가 아니라 단순 혈액 검사만으로, 또는 대변 검사만으로도 아주 미세한 암세포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에 맞춘 진단을 내리서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하루 동안 마음먹고 다소 절차가 복잡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뽑거나 소변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간단한 검사로도 암에 대한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미래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개인병력 고려한 종합검진 받아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제 2회 뉴잉글랜드지역

#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 공모주제

- 뉴잉글랜드 지역 교과서, 공공 장소 지도, 출판물, website 등에 표기된 동해(East Sea) 표기 실태를 조사하고 체험한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사이버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 내용

## 일정

- 접수 마감 : 10월 8일
- 제출 마감 : 10월 15일
- 시상식 : 10월 29일

## 참여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K이상 12학년  
개인 참여 원칙(개인당 1작품 참여)  
외국인 친구와 참여할 경우 특별 시상

## 접수방법

- Google form 접수 (아래 QR 코드 사용)  
<https://forms.gle/bVb2GxyWWk6xmxg17>
- 접수문의 [naks.ne.us@gmail.com](mailto:naks.ne.us@gmail.com)

## 학년별 공모 작품 유형

- K-2학년: 그림일기 내용 30자 이상
- 3-5학년: 포스터 12X18인치, 100자 이상
- 6-8학년: 에세이  
12 font, double space, 2페이지 이상
- 9-12학년: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파일형식 MP4, 최대 5분,  
본인 얼굴 2/3 이상 삽입,  
저작권 위배되는 음악 삽입 불가

## 시상내용

- 전체 대상 '나라사랑상(총명사상)' 1명
- 과정별 대상 '동해지킴이상, 독도지킴이상'
- K-12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 전체 대상, 과정별 대상 수상 학교 및 교사 시상
- 참가자 전체 시상

## 심사기준

- 교과서, 지도, 출판물, 지역 공공장소, website 등 조사 및 시정 노력
- 시정 결과
- 주제 적합성(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작품 완성도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후원  외교부  주보스턴총영사관  보스톤코리아



한미수교 140주년  
**KOREAN**  
Kimchi Festival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Hastings Park,  
10 Lincoln St.  
Lexington, MA

**김치 김치 KIMCHI**

- 김치만들기 체험  
Kimchi Recipe & Demonstration
- 배추김치 판매  
Kimchi sales
- 팍두기 판매  
Radish kimchi sales
- 총각김치 판매  
Bachelor Kimchi sales

**K-FOOD**

- 불고기덮밥  
Bulgogi Rice
- 김밥  
Kimbap
- 떡볶이  
Spicy Rice Cake
- 김치전  
Kimchi Pancake
- 만두  
Korean Dumpling
- 잡채  
Jabchae

한복입고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Gift for wearing your hanbok



**볼거리 & 놀거리**  
Share Korean Culture



- 국기 태권도시범  
Tae Kwon Do Performance
- 민속무용  
Traditional Korean Dance
- 노래 와 춤 K-pop  
K-pop Sing & Dance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Korean Game
- 매운것 먹기  
Try K Spicy & Traditional Foods
- 영어이름 한글로쓰기  
Write Your Name in Korean
- 제기차기  
Jegil Kick
- 박터치기  
Korean Pinata party
- Raffle Game



주보스톤대한민국총영사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매사추세츠한인회

보스톤코리아

행사후원 상담의뢰 : 978-807-1622 (회장) / 978-461-2424(사무총장) / masskorean2021@gmail.com



#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제 42 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제 42대 한인회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각 한인 및 미국 단체와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유능하신 분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아래와 같이 회칙에 의거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서류 접수를 공고합니다.

##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2년 10월 1일 -10.31일

## 2. 등록 방법

- 후보자의 이력서와 추천인 25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원장에게 제출.  
김동원(선관위위원장) dentikim@hotmail.com  
김병국(선관위간사) Byunggkim@gmail.com

〈공탁금 : \$5,000〉

공탁금은 회칙에 따라 선거에 사용된 지출을 정산한뒤 서류와 함께 남은 금액을 42대 당선자 집행부에 이관한다,

## 3. 선출 방법

- 후보자가 2인 이상. (선거인 명부 작성후 직접 투표로 선출. 자세한 내용은 양측 후보와 의논한다)
- 단수 후보일 경우 선관위가 서류 검토를 거쳐 선관위원장이 당선자를직접 발표한다.

## 4. 선거 장소

한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김동원( 41대 부 이사장)

## 선거관리 위원

남궁연(12대회장)  
김영기(32대 회장)  
안병학(35대 회장)  
김병국(41대 이사)  
애나 정 (41대 이사)  
허훈 (41대 이사)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